

DCS

Daejeon Chungnam Sejong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을 연계하고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원격교육 생태계**를 구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DCS Together>에서는 원격수업 혁신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최신 교수법 동향, 수업노하우, 정책연구 결과,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권역 내 **공동활용 가능한 강의녹화 스튜디오**를 충남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활용이 가능한 원격강의 콘텐츠**를 개발 및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국립대



이진숙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
충남대학교 총장

대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 중 '상아탑'이라는 게 있다. 속세를 떠나 오로지 학문이나 예술만을 추구하는 곳을 일컫는 표현이다.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은 뭔가 고립되어 있고, 다른 영역과 구별되어 오로지 자신만의 분야만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요즘에도 대학을 상아탑에 비유하는 게 맞나? 물론 과거엔 이 의미가 딱 들어맞았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공중 보건 위기, AI 중심의 정보 체계가 얽히고설켜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상아탑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며 사는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도 대학은 계속 상아탑이 되어야 할까? 공대생은 공학만 하고, 의대생은 의학만 하고, 인문대생은 인문학만 해야 할까? 대학은 정말 연구만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곳으로만 남아야 할까? 만약 그게 맞는다면, 왜 해외의 일류 대학들

은 기존 상아탑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왜 미국의 칼텍(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은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연구를 위해 지역사회 기업과 협력했을까? 왜 스탠퍼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는 기후 위기나 빈곤,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에 자원을 집중할까? 어쩌서 영국의 캠브리지(University of Cambridge)는 학교 안에만 있지 않고 지역과 연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 열을 올릴까?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가 MicroMasters라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교육 연결망을 구축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 왜 세계의 우수 대학들이 상아탑에만 안주하길 거부하고 학문 간 융합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과, 기업과, 세계와 연결하려고 애를 쓸까?

경계가 희미해진 시대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희미해졌고, 전공의 경계가 희미해졌으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간적 구분이 그 의미를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 뿐인가. 이젠 지역 간 경계도 희미해지고, 나아가 세계와의 경계까지 와해하는 중이다. 구분 짓고 한계를 설정한다는 경계(境界)가 소멸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대학만큼은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오늘날 대학은 자기 전공 연구만 강조하고, 전공 결과만을 가르치던 패러다임을 넘어서, 융합하고 연결하며 사회 변화에 기여하란 요구에 직면했다. 이제 공대생은 공공 정책에 참여하고, 의대생은 건강의 사회적, 경제적 결정 요인을 탐구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AI를 이해하고 자신의 전공 지식을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화할 줄도 알아야 한다. 당연히 대학 내 학과 간 경계, 전공 간 구분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이 강화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 이전부터, 앞서가는 대학들은 지역 자원을 축적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전만 하더라도 지역의 대표 연구소와 기업이 창출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업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여러 대학이 나서왔다. 일본의 도쿄대학교는



어떤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오늘날, 대학이 이제는 지역사회를 살릴 새로운 경로 창출에 앞장서는 중이다. 대학이 지역사회가 되고, 지역사회가 대학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많다. 지역 자원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 지역민 건강을 증진하는 일, 지역사회 여가 인프라를 새롭게 하는 일, 나아가 지역 내 고령화나 거주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 등 혁신 거리는 무궁무진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은
로컬에만 머물게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과도
만나야 한다.**

어디 지역사회뿐일까?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교가 그렇듯,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은 로컬에만 머물게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과도 만나야 한다. 다른 사회, 다른 인종, 다른 문화에서 살던 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열린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할 대학인 것이다. 초격차 기술로 인해 언어적 장벽이 허물어지는 오늘날, 지역대학이 세계와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학문 간 경계를 허문 교육방식에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공감하며 해결하고 싶어 할 문제 설정,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뒷받침해 줄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캠퍼스는 특정 국가의 오프라인에 존재하지 않고, 가상으로 존재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수는 광주에, 학생들은 전국 각 시군구와 전 세계 각 나라에 있으면서 학습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다듬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현실화하는 대학. 결국 이처럼 기존 경계를 허



물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갈 대학 생태계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각 국립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책임 때문이다. 특히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인재 개발에 그 어느 대학보다 막중한 책무성을 지닌다. 뿐인가. 국립대는 기초학문분야를 포함하여 다른 사립대가 갖지 못한 여러 학문 분야와 관련한 역량을 보유하기에, 새로운 대학 모습을 만들어내는 기반으로 제격이다. 여기에 더해 국립대엔 지역의 여러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중요한 건 대학 구성원과 지역 및 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기꺼이 따를 비전과 이를 실현할 강력한 리더십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아탑 역할에 대학을 가두지 말고, 지역과 세계와 함께 연결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미래의 혁신가로서의 대학을 만들어가자. 바야흐로 혁신의 시대다. ◆

이진숙 —————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충남대학교 총장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교육(학사), 동대학원 건축계획(석사),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건축환경계획(박사)을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2013~15), 공과대학장(2017~19)을 역임했고, 현재 충남대학교 총장(2020~),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2023~), 국가산학협력위원회 위원장(2023~)으로 재직 중이다.